

離婚에 影響의인 心理的 變因에 關한 一研究

金 基 煥

(서울 家庭 法院)

100 쌍의 離婚夫婦를 中心으로 結婚破綻의 力學的 關係를 밝혔다. 主로 面接法과 投射法이 適用되었다. 밝혀진 影響의인 變因을 羅列해 보면 出生地 學歷別 學歷差 職業 別居期間 經濟水準 結婚準備狀況 婚定의 主眼點, 人和關係, 道德性, 父母의 和合度, 兄弟順位, 性格 등이 있다. 그 外에도 몇가지 要因에 關해서는 繼續 研究가 必要하다

첫째 韓國의 家族制度 即 大家族制度는 事實上 團欒한 夫婦生活에 障礙를 주며 複雜한 人和關係를 造成하여 不必要한 葛藤의 温床이 되는 것 같다.

둘째 經濟的인 基礎가 없는 곳에 幸福한 夫婦關係가 成立될 수 없다. 따라서 生活水準 自體가 높아져야만 하겠다.

셋째 우리 韓國에서 所謂 奉祭祠의 責任이 있는 長男이나 關心의 對象이 되는 獨子나 長女에 對한 家庭教育이 달라져야 하겠다.

넷째 兒童의 訓育에서 放任의 態度를 取한다는 것은 危險한 일이다. 자칫 解釋을 잘못하여 自由를 放任과 混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

다섯째 定婚하는데 있어서 可及의 性格이나 生活力같은 現實的이고 內面的인 問題를 考慮하는 冷靜한 態度가 必要한 것 같다.

끝으로 밝혀둘 것은 本研究에서 比較集團을 使用하지 못하여 變因의 探索的인 研究에 不週하였다는 點과 紙面關係로 統計資料를 掲載하지 못하였다는 點이다.

序 論

本 研究는 서울家庭法院에 提訴된 離婚 夫婦를 中心으로 離婚의 力學的인 側面을 밝혀 보려는데 目的이 있다.

離婚에 關한 問題는 法律的이고 道德的인, 또는 社會的인 問題로서 數多한 研究가 있어 왔다. 그러나 모두가 規制的인 또는 制度的인 立場에서의 接近일뿐 結婚이라는 한 男性과 한 女性의 適應的인 側面이 事實上 疎忽히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方面에 關한 研究는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離婚이 가지는 社會的 意義는 대단히 深刻하고 結婚當事者의 幸·不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걸드려 子女의 心理的 社會的 影響은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韓國은 特히 數次에 걸친 社會的 激動을 겪

었었다. 8.15解放, 6.25動亂등으로 家庭의 인 狀況이 社會的으로나 心理的으로 큰 衝激을 받아 왔다. 8.15解放이 民主主義라는 理念아래 男女의 平等을 내세웠고 이전의 男尊女卑 思想이 劇的인 變遷을 겪어야 했다.

6.25動亂은 많은 家庭을 무참히 破壞했고 經濟的인 混亂과 戰爭이 가지는 特有한 生理는 종래의 道德的 價値基準의 深刻한 變化를 가져 왔다.

이런 諸條件의 後效果는 무엇보다도 離婚이라는 外顯의 樣式으로 表現되고 있다. 1942年 京城地方法院에 提訴된 離婚件數가 73件임에 比해 1963年 10月 1日에서 1964年 12月 31日까지 서울家庭法院에 申請된 離婚件數는 무려 840件이나 된다. 이러한 現象은 그 社會的 意義와 그 激增하는 離婚率 自體로서 研究할 問題가 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家庭法院에 提訴된 事例中 問題가 多面的이고 心理的인 側面이 複雜하게 엮힌 것만을 추려서 分析檢討하였다. 그러므로 離婚의 單純한 現象인 研究가 아니라 條件 分析的인 研究, 즉 結婚生活을 破局으로 이끈 諸要因을 밝힘으로서 그 動的인 力學關係를 探究하여 離婚의 機能的인 面이나 構造的인 面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方法 및 節次

研究對象으로는 서울家庭法院에 繫留中인 100개의 事例를 使用했다. 여기서 離婚과 聯關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主要變因으로서 生活條件, 結婚成立過程, 夫婦間의 期待一致度, 兩親 및 生育過程, 結婚의 準備狀態, 性格 및 道德性, 當事者가 主張하는 離婚의 理由로서의 行動特徵을 잡고 이런 變因들을 다시 細目으로 나누어 資料를 整理해 가기로 하였다.

使用된 研究方法으로는 主로 面接을 使用하였다. 여기에 證人의 證言이나 證憑書類가 參考로 되었고, 性格이나 知能評價를 爲해서는 心理學的인 面接과 投射의 方法(主로 로르샤하 檢査)을 使用하여 客觀的인 分析을 試圖하였다. 諸事例의 環境的인 要因調查는 實地의 環境調查가 아닌 面接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 겹해서 말해 둘 것은 家庭法院이 夫婦間의 圓滿한 妥結을 目的으로 하지만 慰籍料나 其他 利害關係가 얽혀 있기 때문에 離婚申請者의 陳述內容을 額面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參酌하여 面接中의 情緒的變化 言語上의 停滯 등에 留意하여 眞實한 內容을 把握토록 하였다.

結 果

夫婦의 出生 및 成長地가 懸隔하게 다르면 離婚事例數가 若干 增加하는 것으로 보아 文化, 慣習등이 夫婦間에 큰 差가 있으면 結婚生活에 混亂이 오는 것 같다.

結婚年齡이나 夫婦間의 年齡差는 結婚生

活의 差別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

倦怠期는 1年內에 생기는 事例가 가장 많았고, 結婚生活年數가 거듭됨에 따라 事例數는 減少되어가는 現象이 보인다. 이것은 正常集團이 5年을 中心으로 3年 乃至 7年 사이에 倦怠感을 느낀다는 事實을 比較할 때 質的인 差異가 있는 것 같다.

結婚의 破綻年齡은 男子의 경우 30歲, 34歲, 37歲 등 女子의 경우 26歲, 30歲, 32歲 등 一定한 波狀的인 봉우리를 이루면서 事例數가 增減된다. 이 年齡들은 社會的으로 重要한 試鍊期를 意味하는만큼 여러가지 欲求 不滿과 同居生活의 不和의 要因이 相乘作用을 한데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學歷別로 보면 女子는 中卒程度에서 離婚件數가 가장 적었고, 男子는 大卒程度에서 離婚件數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韓國의 社會的인 與件이 封建思想을 脫皮하고 새로운 民主社會로의 移行過程에서 中卒程度의 女性의 家庭的인 適應을 容易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낡은 過去를 代表하는 媳父母와 새로운 時代的인 呼吸을 하고 있는 新世代의 男便과 女便의 사이에서 屈伸調節者의 役割이 中卒의 學歷女性에서 無難하게 아닌가 생각된다. 男子는 大卒集團에서 離婚件數를 많이 내는 理由가 우선 理想에 對한 強烈的인 要求와 이에 對한 現實的인 不滿이 家庭이라는 狀況을 밟아 暴發되는 것 같다.

夫婦間의 學歷差는 아무리 크더라도 男子가 優位에 있을 때는 別로 差別的인 效果가 없지만 女子가 優位인 경우 뚜렷이 不幸한 結果가 나타나는 것 같다.

職業別로 보면 商業, 軍警, 運轉手 등의 順位로 離婚件數가 配列되어 있다. 이것은 職業이 가지는 特殊性格이 對人關係性的인 發散 등에 特異한 側面을 가지고 있는데 原因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夫婦間의 別居期間은 他意에서든 自意에서든 離婚에 差別的인 效果가 있는 것 같

다. 즉 別居期間이 길수록 破綻率이 높았다.

經濟水準으로 보면 上流層보다도 中·下流層에서 離婚件數가 增加되고 있다. 이것은 美國같은 所謂 經濟的인 發達을 이룬 國家와 相反되는 傾向이다. 이것은 自殺의 傾向과 비슷한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結婚前에 結婚에 對한 一般的인 準備가 不足하다는 事實이 結婚의 破綻과 一定한 關係가 있는 것 같다.

結婚決定은 本人이 決定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結婚破綻과의 關係性이 의심되거나 正常集團과의 比較가 없으므로 結論을 내리기 어렵다.

結婚決定의 主眼點은 男子일 경우 女子의 容貌가 가장 많았고, 女子일 경우는 男子의 生活力을 主로 보고 있다. 男子일 경우엔 어떤 한가지 側面에 主眼點이 치우치는 傾向이 있는데 反하여 女子일 경우엔 比較의 全般的인 配慮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注目할 點은 主要한 破綻의 要因으로 생각되는 性格的인 問題는 兩便이 모두 큰 配慮를 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婚定時에 未洽點의 有無는 男子에게 結婚의 差別的인 影響이 없지만 女子에게선 影響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女子의 役割이 家庭이라는 限定된 世界에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不滿點이 있으면 反芻의으로 想起되어 不幸을 自招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經濟에 對한 夫婦間의 期待一致度는 男子와는 달리 女子에서는 結婚破綻과 一定한關係가 있는 것 같다.

性的 및 健康面에서의 期待一致度는 結婚破綻面에서 男女間에 별다른 差別的인 效果가 없는 것 같다.

人和問題에서의 期待一致度는 結婚破綻과 一定한 關係가 있는 것 같다. 女子側에선 더욱 이 要因의 役割이 크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흔히 大家族制度가 提示하는 人間關

係 問題는 結婚生活의 幸·不幸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 같다.

性格의 期待一致度는 離婚夫婦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不一致를 보여주는 傾向이 있다. 이는 性格的인 要因의 重要性을 浮刻시키는 例라고 하겠다.

道德性에 關한 期待一致度는 男子보다도 女子에게서 結婚破綻과 뚜렷한 關係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男子의 橫暴와 性的 紊亂같은 것이 主內容이 되고 있다.

申請人은 女子가 男子보다 壓倒的으로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一般的인 傾向이 男子側의 支配的 位置와 女子의 被害的 位置와 關聯해서 짐작이 가는 現象이다.

兩親의 狀況을 보면 夫婦 어느 편이든 父早失과 結婚破綻에 一定한 關係가 보인다. 이것은 家庭의 支柱가 喪失되었을 경우에 當하게 되는 經濟的 社會的인 影響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兄弟順位는 長男, 長女, 獨子가 離婚傾向과 뚜렷이 關係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所謂 長子가 家督을 相續한다는 從來의 慣習과 첫 新生兒에 對한 家族의 지나친 關心이나 愛情과 關聯해서 重要한 意味가 있다.

父母의 和合度가 낮음에 따라 離婚事例가 增加하는 것 같다. 이것은 成長時에 어떤 葛藤으로 말미암아 性格的인 歪曲이 생기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結婚生活에도 不幸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幼兒期에 放任的인 訓育方法을 使用했을 때의 離婚事例數는 壓倒的으로 컸다. 이것은 無關心이 賞, 罰 어느 쪽 보다 人間 性格形成에서 不利하다는 結果와 比較해서 興味로운 點이다. 즉 放任은 어떤 價值基準을 形成하는 判別的 機能을 發達할 수 없게 하고 事實上 父母의 關心이 없다는 데서 一種의 不安感을 지니게 된다는 點과 關聯해서 생각할 수 있다.

父母의 道德水準은 兩便이 모두 높지 않

다. 男子側 父母는 下程度에 가장 많고, 女子側 父母는 中程度에 가장 많다. 이것으로 보아 女子側보다도 男子側 父母의 道德性 問題가 結婚에 一定한 影響을 미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家族制度가 男子側 父母와 同居해야 한다는 事實과 比較할 때 重要한 意味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性格面에서 보던 男子가 分裂性이고 女子가 히스테리性을 띄울 때 結婚의 破綻率이 가장 컸다. 이것은 分裂性 氣質에서 보는 冷淡, 無關心, 內閉的 傾向에다 히스테리의

自己中心的이고 幼兒的인 傾向이 相容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

當事者들의 離婚으로 이관 主要 不滿은 不貞의 性格側面이 많았고, 實際의 要因은 暴行, 遺棄, 不貞, 性格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韓國의 家庭이 아직도 男性의 物理的인 暴力이 橫行한다는 事實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男子와 女子의 道德性을 볼 때 男子側의 道德性이 훨씬 낮은 경우에 破綻率이 큰 것 같다.

Résumé

An Exploration of the Psychological Variables leading to divorce

The purpos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variables contributing to divorce which had been under proceedings in Seoul Family Court during the period from Oct. 1964 to Dec. 1965.

The subject used here were of 100 pairs of married couple selected from the larger population waiting for the juristic solution. They were extremely complicated in psychological aspects. The main procedure in research adopted here was interview technique. For furtherance of understanding the deep lying personality variables, projective technique was also applied. Furthermore, the testimony from the witness was used as complementary information to strengthen the data collected by means of the method above mentioned.

The present research yielded the following variables as relevant to divorce; the distance of birthplace of the couple, the difference in academic career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kind of vocation, the length separation period in married couple,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marriage life, criteria of choosing the espouse, human relation in family, the morality level of the couple, the degree of happiness of parents, sibling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variables. However, other variables not mentioned here for the sake of brevity might be worthy of further research.

It is of great regret that because of the lack of control group, the variables seemingly significant here, were not subjected to statistic verification.